

2013년도 포장기술사 합격자

Professional Engineer Packaging

기술경쟁력에 의한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제품의 외형적인 포장 및 포장디자인도 기업의 경쟁요소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포장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해당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살림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품의 품질과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이 요구되어 포장기술사 자격제도가 제정되었다.

국내 포장산업의 최고 전문가인 포장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으며 1974년 생산관리기술사(디자인 및 포장)로 신설되어 1983년 생산관리기술사(포장)로 변경된 후, 1991년 현재의 포장기술사로 자리잡게 됐다.

포장기술사는 포장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포장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포장을 진단하며, 물류부문과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 포장 표준화 업무 및 신규사업을 조사하는 등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은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인 필기시험과 구술형 면접을 통해 시험이 이뤄진다.

2013년도에는 총 10명의 포장기술사가 합격했다. 본 고에서 2013년도 포장기술사 최종합격자들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권민석 (주)농심 포장개발팀 대리

류근하 (주)삼양사 IMC팀 과장

손기목 LG디스플레이 TV기구설계팀 과장

유성현 (주)LG생활건강 파트장

조정훈 (주)LG생활건강 파트장

김응용 삼성전자 조명개발팀 책임연구원

박종민 (주)보성인더스트리 상무

오봉록 아모레퍼시픽 엔지니어링디자인팀 과장

장석한 농심엔지니어링(주) 기술지원팀 과장

하태언 코오롱베니트 통합물류팀 부장

기술 교류, 협력 통해 중·소 포장 업체 도움되고파



권민석

(주)농심 포장개발팀 대리

2013년도 포장기술사에 최종합격한 권민석 대리는 “먼저 제 자신이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포장 개발 업무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밝히면서 “현대사회에서

는 포장 없이 제품도 없는 시대인 만큼 포장 관련하여 기술자로 인정받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막중한 사명감도 느껴진다”고 전했다.

대학교에서 섬유 고분자를 전공한 그는 2004년에 포장재 컨버팅업체인 롯데알미늄 연포장 사업부 개발팀에 입사, 4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포장재료를 접하는 경험과 이론적 기틀을 다진 경험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주)농심 포장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스낵류, 용기면류, 무균밥, 음료 등의 제품에 대한 적정 포장을 설계/적용 업무와 환경, 고객편의 향상을 위한 포장 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포장관련 업무가 천직이라 생각한다”는 그는 일반인이 포장산업의 식품, 전자, 유통 등과의 긴밀성, 중요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작년 한해 33조원의 산업매출을 일으킨 기반 산업이란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많은 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포장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포장기술사 응시를 통해 미흡한 분야를 보완할 수 있었다는 권 대리. 그는 포장이란 분야는 다양한 재료에 대한 기초 지식 뿐만 아니라 가공기술을 이해해야 하며, 최신 기술 트렌드까지 파악해야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광범위한 포장업계 전반의

자료를 정리하고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서술하는 일이 많이 힘들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권 대리는 포장기술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관련 정부기관, 출판계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전하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포장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과의 기술 교류, 협력을 통해 중,소 포장재 제조업체에 양질의 기술정보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인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포장 정보를 바로 잡고, 포장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포장기술사 합격을 위해, 준비 과정 속에서 주말 부부와 다름없이 지냈다는 권 대리. 그는 그동안 묵묵히 응원해 준 아내에게 고생했고, 수고했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혁신적인 포장재 개발에 주력



김응용

삼성전자 조명개발팀 책임연구원

“최고 권위의 국가기술자격인 기술사를 취득하게 된 점은 엔지니어로서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2003년 애경산업 포장개발팀에 입사하면서 패키징과의 인연을 시작, 생활용품 포장용기의 개발을 담당해 온 김응용 책임연구원은 2010년 삼성LED로 이직하여 LED제품(조명, 부품 등)의 포장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그 동안 개발한 제품 중, window 부착 드럼세탁 기용 세제용기(2007년)와 LED램프용 캡슐형 패키징(2013년)이 Korea Star Awards 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현재, 삼성전자 LED사업부에서 포장개발파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며, 포장의 특성상 관련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넓어서, 공부할 양이 매우 많다는 점이 어려웠다는 그는 향후 지나치게 압기 위주의 문제는 지양하고, 실제로 설계, 개발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응용 책임은 현재 “포장과 제품의 경계가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전하면서 “포장과 제품이 일체화가 되어 제품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제품 기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포장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 포장에 있어서는, 포장디자인과 포장개발의 협력을 통하여 더욱 혁신적인 포장재가 개발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직접 여러 가지 혁신 포장을 개발해 보고, 그 사례를 통한 개발 모델과 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갈 포부를 갖고 있다.

단순히 포장의 입장, 포장 종사자의 입장, 공급업체의 입장에서가 아닌, 제품과 물류, 마케팅 등 전반적인 관점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새로운 포장재와 기술을 개발하는데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는 김응용 책임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더 좋은 포장 위해 노력할 터



류 근 하

삼양사 IMC팀 과장

2013년도 포장기술사로 최종 합격한 류근하 과장은 “합격하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무엇 보다 어린 나의 자식들이 성장하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나는 질문을 하였을 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1년 제일제당 포장개발팀에 입사, 포장개발업

무와 포장자재 구매 업무를 해 온 류근하 과장은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삼양사 식품소비재BU에서 포장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해왔던 포장 관련 일에 대해 한번쯤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을 갖고 싶었다”는 그는 “포장 관련 강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기술문제 중심으로 보면서 시험을 준비해 왔다.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며, 그동안 지금까지 익숙했던 포장 분야 이외의 관련 분야를 접하면서 포장분야의 광범위함을 새삼 체험했다는 류 과장은 앞으로의 더 많은 할 일과 발전가능성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류근하 과장은 “포장기술사란 포장산업의 각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역할”이라는 판단 아래, 앞으로 더 좋은 포장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는 포장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패키징 발전 및 위상 확보에 주력



박 종 민

(주)보성인더스트리 상무

“포장(包裝)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는 자신감만으로 시작한 준비과정이 포장기술사란 자리에 오기까지 몇 번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위로와 격려로 도움을 주신 많은 선배님들께 준비과정 동안 어려웠던 순간을 잊지 않고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합격의 기쁨을 감사 인사로 올립니다.”

박종민 상무는 솔벤트 타입의 점착제를 개발하는 회사를 거쳐 20여년 전부터 연포장 분야에서 근무해 오고 있다.

현재 그라비아 인쇄/DRY 라미네이션/압출 라미네이션/파우치 가공에 이르는 연포장의 전 공정을 갖추고 식품포장지/생활, 산업용 포장지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 (주)보성인더스트리에서 포장재료의 개발과 고객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품질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R&D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 상무는 주위에 많은 선배 포장기술사분들의 권유로 포장기술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전한다.

“연포장 관련업무를 경험함으로써 배웠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지식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부족한 분야를 더 배우고 정립하고자 시작했다”는 그는 “연포장(軟包裝) 분야의 경험을 기초로 시작하여 주요 포장재료 식품포장, 농수산물포장, 완충/물류 등 각 산업분야의 기술적 기능과 기법 그리고 자원순환사회의 환경친화적인 현대 패키징의 역할을 정리하여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을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박종민 상무는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익혀 온 연포장 연관 지식은 편협적인 지식이었다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다고 토로한다.

폭넓은 지식을 짧은 시간에 이해해야만 했기 때문에 몇 번의 고배를 마셨다며, 금번 합격이 누구보다도 더 없는 기쁨이라고 밝혔다.

박 상무는 앞으로 전문지식이나 실무에 따른 개발 및 개발된 포장을 진단하여 물류와 연계성을 갖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패키징은 누구나 필요하고 또한 사회적 공헌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는 박종민 상무.

그는 패키징 산업계의 포장인 육성과 함께 비포장인을 대상으로 패키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러한 21세기 패키징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데 포

장 기술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연포장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해 각 분야를 밀접하게 교류하고 상호간의 역량을 키워 패키징을 더 발전시키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물류 분야관심, 다양한 패키징 분야 섭렵할 터



손기목

LG디스플레이
TV기구설계팀 과장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에 세 번의 도전 끝에 합격한 손기목 과장의 소감은 남다르다.

“성취감보다 후련함이 더 큰 것 같고, 포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써 해야 할 일 중에서 하나의 큰 산을 넘은 것 같은 후련함과 기술사로서 부끄

럽지 않도록 가져야 할 책임감 또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LG디스플레이에서 포장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기목 과장은 B2B로써 디스플레이 부품사업 분야에서 포장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지류, EPS, EPP, PET외 여러 가지 포장재 개발을 적용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포장개발에 힘쓰고 있다.

포장학과를 졸업하고,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포장개발 업무를 해왔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준비해 왔다는 그는 업무와 함께 자격시험을 준비하다보니 규칙적으로 공부하는게 다소 힘들고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손기목 과장은 “포장기술사는 포장분야의 기술 리더로써 시장을 이끌어가고 Trend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전한다. 그런만큼 그는 폭넓은 패키징 분야

에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각 기술 파트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앞으로 포장기술사로서 필요한 여러 지식들을 배우는데 노력을 하고 싶다는 그는 최근들어 관심을 갖고 있는 물류 분야에도 공부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진 기술과 포장 융합 통한 발전 이룰 터



오 봉 록
아모레퍼시픽
엔지니어링디자인팀 과장

“현업에 종사하는 Engineer라면 누구나 도전을 해보고 싶은 기술사에 합격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현 포장업계에서 좀더 보탬이 되고 저 스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쁩니다.”

2013년도 포장기술사에 합격한 오봉록 과장은 애경산업과 한국존슨앤드존슨을 거쳐 현재 아모레퍼시픽에서 제품 초기 단계의 문제점을 사전 Screen하고 소비자가 사용함에 편리하도록 제품을 구체화 시키고 표준준본을 작성하여 포장재 및 제품의 생산이 원활하도록 하는 신제품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오봉록 과장은 “기술사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최상위의 기술 자격증인 만큼 포장업계의 정점은 포장기술사라 생각을 하고 이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포장재의 전반적인 것을 모두 설계하고 테스트해 봤다고 생각했지만 이보다도 훨씬 넓고 깊은 지식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포장기술사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여, 기존 기술사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했다는 오

과장은 앞으로는 포장에 핵심이 되는 분야를 나누어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성형, 재질, 공정, 설비등으로 나눈다면 시험 문제에서도 포장업계 전반에서 문제를 골고루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포장기술사는 관련업/비(非) 관련업에서 사회적 network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산업의 융합을 통한 기술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장기술사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오봉록 과장. 그는 식품과 전자제품 조합, 건축과 생활용품의 조합 등 보다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과업에 리더로써의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포장 기술자를 더욱 양성하고 질 높은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오 과장.

global network를 형성하여 선진 기술과 우리 포장을 융합하여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그의 발전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패키징 산업 발전위해 노력할 터



장 석 한
농심엔지니어링(주)
기술지원팀 과장

“Packaging Engineer로서 자격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포장 기술사 합격은 제 자신의 영광이며 앞으로 패키징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 기술사님들의 품위와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농심엔지니어링(주)에서 Total Packaging System Engineering 및 Packaging 자동화 라인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석한 과장은 농심 그룹내 업무를 주로 진행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국내 식품, 제약 회사의 패키징 자동화 솔루션 및 단위설비, Turn-Key라인 공급 프로젝트를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해외 Packaging Line 수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입사 초기, 장 과장은 Packaging Machine에만 집중을 하다가 Packaging Materials, Packaging Method등을 알아야 Total Packaging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Packaging Engineer가 될 수 있다고 느꼈고 Packaging Material & Method에 대한 Know-how도 조금씩 쌓아 오게 됐다.

“이러한 경험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싶었고 Engineer로서 국가가 공인하는 최고의 기술자격증에 도전해 보고 싶었다”는 그는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광범위한 패키징의 영역에 놀라게 된다.

그는 “접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 공부할 때 어려움이 많기도 했지만 함께 공부하였던 분들과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고 서적와 다양한 자료, 동영상을 이용하여 원리를 파악하고 제 나름대로 정리 노트를 만들어 시험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장석한 과장은 “포장기술사는 패키징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인만큼 책임감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낀다”고 전한다.

그는 앞으로 패키징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을 창조하고 트렌드를 파악하여 자기 계발을 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패키징 업무를 좀 더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여 발전시켜 나아가며 신기술 개발에 노력하여 이익을 도모할 뿐 아니라, 패키징 분야

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패키징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장관련 협회나 단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석한 과장은 “패키징 산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이 패키징의 중요성 만큼 그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쉬움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패키징 산업은 산업분야에서 이미 핵심산업이 된 만큼 인지도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장석한 과장. 그는 “패키징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프라이드를 갖는 한편, 많은 분들이 포장기술사에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포장업계나 관련단체가 앞장서 패키징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LG생활건강 디자인센터 최초 포장기술사 자부심



유 성 현
(주)LG생활건강 파트장

2013년도 포장기술사에 합격한 유성현 파트장은 “기술계 최고의 국가 공인자격이며, 기술분야에 있어서 꽃이고 최고봉이자, 엔지니어라면 가져보고 싶은 자격을 이렇게 취득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며 “그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을 준 선, 후배 및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했다.

유성현 파트장은 한불화장품의 디자인/설계팀과 생활용품 회사인 존슨앤드존슨 포장개발센터를 거쳐, 현재는 LG생활건강 디자인센터/신기능기술팀

에서 제품설계, 개발업무를 하고 있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디자인, 신규 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임자로부터 전수받은 지식과 업무를 통해 얻어진 경험으로는 제품설계, 부자재 개발에 부족함을 느껴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자”는 판단 아래 기술사를 준비하게 됐다는 그는 “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곤란도 많이 겪었지만,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많은 지도를 받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그룹 스터디로 시험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유 파트장은 LG생활건강에서 제품을 직접 디자인, 개발하는 디자인센터 최초의 포장기술사가 됐다는데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포장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새삼 포장의 광범위성에 대해 놀랐다는 그는 포장은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각 분야의 지식들을 다방면으로 습득하고 적용하는 것이 경쟁력있는 포장을 개발하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유성현 파트장은 현재 연1회 진행되고 있는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이 횟수를 늘려 포장기술사를 꿈꾸는 포장개발자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한편, 많은 포장기술사가 배출되어 포장산업 발전에 기여 할 인재 확보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포장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인 지원이나 정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유 파트장은 앞으로 실력있는 포장전문가가 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성실하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포장전문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소비자 및 사회 공헌 포장 개발 주력



조 정 훈
(주)LG생활건강 파트장

2013년도 포장기술사에 합격한 조정훈 파트장은 “엔지니어로서 국가 공인 기술사가 된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7년부터 LG생활건강 디자인센터 신기능 기술팀에서 용기 및 케이스를 설계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디자인팀에서 컨셉 디자인을 하면 내용물과 용기의 상용성에 의한 재질선정, 금형개발, 성형해석, 부품에대한 기능, 조립성, 생산성 및 소비자 사용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많은 금속, 필름,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많은 특성과 지식, 후가공에 대한 지식, 제형에 따른 생산방식 및 설비 지식이 필요했다는 조정훈 파트장.

그는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적인 지식과 연관되는 모든 기술을 현업에서 체득하기에는 한계를 느껴 기술사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준비과정이 녹록치는 않았을 터.

포장에 대한 분야가 융합산업이다 보니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가 많았다는 그는 특히 연포장 및 골판지, 완충포장 등은 현업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웠으며 포장에 관한 관련서적 및 정보가 너무 알려지지 않아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조정훈 파트장은 포장이라는 분야는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보니 혼자서 아닌 여러 기술사 선배님들과 교류 및 코워킹이 필요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포장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산업이 아닌 제품을 보호하고 제품의 편의성 및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으로 소비자 및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포장 제품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싶다고 전했다.

포장기술사의 취득이라는 처음의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기술사 준비할 때 마음으로 많이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조정훈 포장기술사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친환경 포장 관련 NGO 활동 계획 밝혀



하 태 언

코오롱네트 통합물류팀 부장

2013년도 포장기술사로 탄생한 하태언 부장은 “포장인의 한 사람으로써 충실히 그 역할을 해 내도록 하겠다”고 합격소감을 전했다.

그는 현재 코오롱에서 20년 정도 물류분야에서 운송 관리 및 포장재 합리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포장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어 기술사 준비를 했다”는 하 부장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1년 정도, 그리고 3개월 정도는 study

group을 만들어서 준비하게 된다.

회사 업무와 포장기술사 자격시험을 병행하다보니, 오랜기간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지 못해 아쉽고, 미안했다는 그는 합격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현재, 포장기술사 시험은 필기, 실기시험 모두 연 1회씩만 실시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을 볼 수 있는 총 횟수가 2회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는 필기시험은 연 1회로 하더라도 면접 시험 횟수를 늘려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태언 부장은 “포장기술사는 친환경포장의 전도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언제나 숭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친환경포장 관련한 NGO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친환경 포장 권장과 과포장 단속에 대한 관련 사용자들의 근본적인 의식변화 및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그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ko]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